

##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 분석

이 지 은<sup>1)</sup> · 황 성 수<sup>2)</sup> · 김 문 길<sup>3)</sup>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 (이하 KEEP1)의 2차년도(2005)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의 부모 세대와 2019년 시행된 추적조사의 분가가구 자녀 데이터에 김희삼(2009) 연구의 이행행렬 분석 방법을 차용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KEEP1 조사가 시작된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1990년생)이었던 아버지와 아들 67쌍, 아버지와 딸 189쌍, 고등학교 3학년(1987년생)이었던 아버지와 아들 368쌍, 아버지와 딸 386쌍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 간 대물림 비율 및 양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중3코호트의 경우 2019년 추적조사 당시 분가한 경우가 많지 않아 세대 간 비교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녀세대가 2006년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김희삼(2009)의 연구와 자녀세대가 2019년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본고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13년이 지난 시점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006년 아버지와 아들(447쌍)보다 2019년 아버지와 아들(435쌍)의 대물림 비율이 1~3%p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아버지와 딸(494쌍)에 비해 2019년 아버지와 딸(525쌍)도 임금 및 소득의 대물림 비율이 5%p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행렬을 통해 2006년과 2019년 사이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교한 결과, 눈에 띄게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6년과 2019년 모두 분가한 자녀세대가 아직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 I. 서론

2017년 당시 IMF 총재였던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한국의 출산률(1.05명)을 보고, ‘집단 자살 사회’라는 말로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2023a, 2023b)에서 발표한 한국의 2023년 2분기 출산률은 역대 최저인 0.7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4년 1.74명, 2018년부터는 1명 이하로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출산율 0.70명 선까지 무너져 이미 2020년 이후 자연감

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소 중인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2023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12년 56.5%에서 2022년 36.4%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비율은 2022년 53.5%로, 2012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에는 교육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천용’이 쉽게 눈에 띄는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였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대의 6.5%, 30대의 10%만이 15년 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개인의 힘으로 미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15년 뒤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sup>4)</sup>고 한다. 즉, 20~30대는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회의적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청년의 69.7%는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성공에 더 영향을 미친다<sup>5)</sup>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노력해도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 세대에게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이행되는 것은 한 사회의 역동성(social dynamism), 사회통합(social cohesion)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다(Solon, 1999).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기회가 있는지에 따라 현재 분배구조에 대한 사회갈등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이동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패널데이터가 어느정도 축적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이동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표성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사회이동성 실증분석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김희삼(2009) 연구에서는 4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서독))과 한국의 이동성을 비교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의 한국은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비교적 낮았으며, 상방 또는 하방 이동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즉,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Orsetta, 2010). 이는 고도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많이 생성되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더라도 교육을 통해 이러한 상위 직종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김희삼, 2009).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고도성장이 멈추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상위 직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상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이전처럼 여전히 높을지 알 수 없다. 또한 사교육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됨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

4) 국회미래연구원(2023).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방안.

5) 서울신문(2023.08.22.). 청년 70% “내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의 조건”[2023년 청년 부채리포트(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3004002>)

향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물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상속을 통한 대물림도 더욱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세대에 비하여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다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2015년까지 매년 추적조사하고,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2019년에 추적조사까지 이루어져 완성형으로 진전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1차 WAVE 데이터를 김희삼(2009) 연구에서의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방법을 차용하여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2004년 중학교 3학년(1990년생)인 집단과 고등학교 3학년(1987년생) 집단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6년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김희삼(2009) 연구와 2019년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본고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13년이 지난 시점에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살펴보았다. 물론 이행행렬에서 나타난 변화가 실제 존재하는 이동성을 정확히 모두 반영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김희삼(2009)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세대 간 상·하방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이행행렬이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

## II. 선행연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이행되는 것은 한 사회의 역동성(social dynamism)과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만약 소득불평등 지표가 동일한 두 사회가 있을 때, 한 사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세습되고, 다른 사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자녀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지표가 동일하더라도 두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질적으로 다르다(Solon, 1999).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기회가 있는지에 따라 현재 분배구조에 대한 사회갈등이나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의 기대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이에 1990년대부터 대표성을 가진 표본이 장기간 조사된 패널 데이터들(예: 미국의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 스웨덴의 The Swedish Level of Living Survey, 영국의 British national Child Development Survey, 독일의 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을 활용하여 사회이동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2000년 중반 이후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하 GOMS) 등을 활용하여 사회이동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중범·전승훈(2008)은 KLIPS 1~2차 가구조사의 부모 세대와 7~8차 가구조사의 분가가구 자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 간 이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자녀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

대 간 대물림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중범·전승훈(2008)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즉, 사회이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여유진(2008)은 제1차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 대물림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지위가 자녀 세대에게 상당히 많이 대물림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부모 지위의 양극단(예: 최상위-상위-하위-최하위일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본연구의 모티브가 된 김희삼(2009)의 연구는 과거 고속으로 성장하던 시절의 많은 기회들이 감소하면서 사회의 상방이동 즉, 개천용이 나오는 현상이 없어지고 있어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세대 간 이동성에 대한 연구는 대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대물림되는지 이루어졌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임금이나 소득 등과 같은 경제력에 대한 변수를 활용하여 세대 간 이동성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이에 당시 10차 조사 발표를 앞둔 KLIPS의 부모와 분가한 가구의 자녀 표본을 대상으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이행행렬을 활용하여 지위의 세대 간 경로를 분석하였다. 즉, 부(모) 세대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분위(최상위-상위-하위-최하위)와 자녀 세대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분위의 이행행렬을 작성하여, 지위가 얼만큼 대물림 되는지 그리고 상방이동과 하방이동이 얼만큼 되는지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성별(아들, 딸)에 따라 다르게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Blanden(2005)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서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이행행렬 결과와 KLIPS를 활용한 한국의 이행행렬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서독)과 비교하여 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 비율이 비교적 낮으며, 상방 또는 하방 이동한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안준기·황성수(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그들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소득수준은 자녀의 교육과 소득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들의 지위가 세대 간 이전되는지 확인하고자 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이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가구의 경제 수준은 다시 자녀의 교육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소득 분위별 교육 및 소득의 세대 간 이전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의 가계소득이 낮은 수준일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이전은 확실하게 존재하며, 이전이 진행된다면 될수록 그 격차가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하였다.

다음으로 2008년 시작되어 2011년까지 실시된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는 4년간의 자료 구축을 통해 2008년 만 65세인 1943년생부터 2011년 만 25세인 1986년생까지 총 7,611명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한국에서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1차(1943~1953년)와 2차(1954~1964년) 조사에서 사회이동이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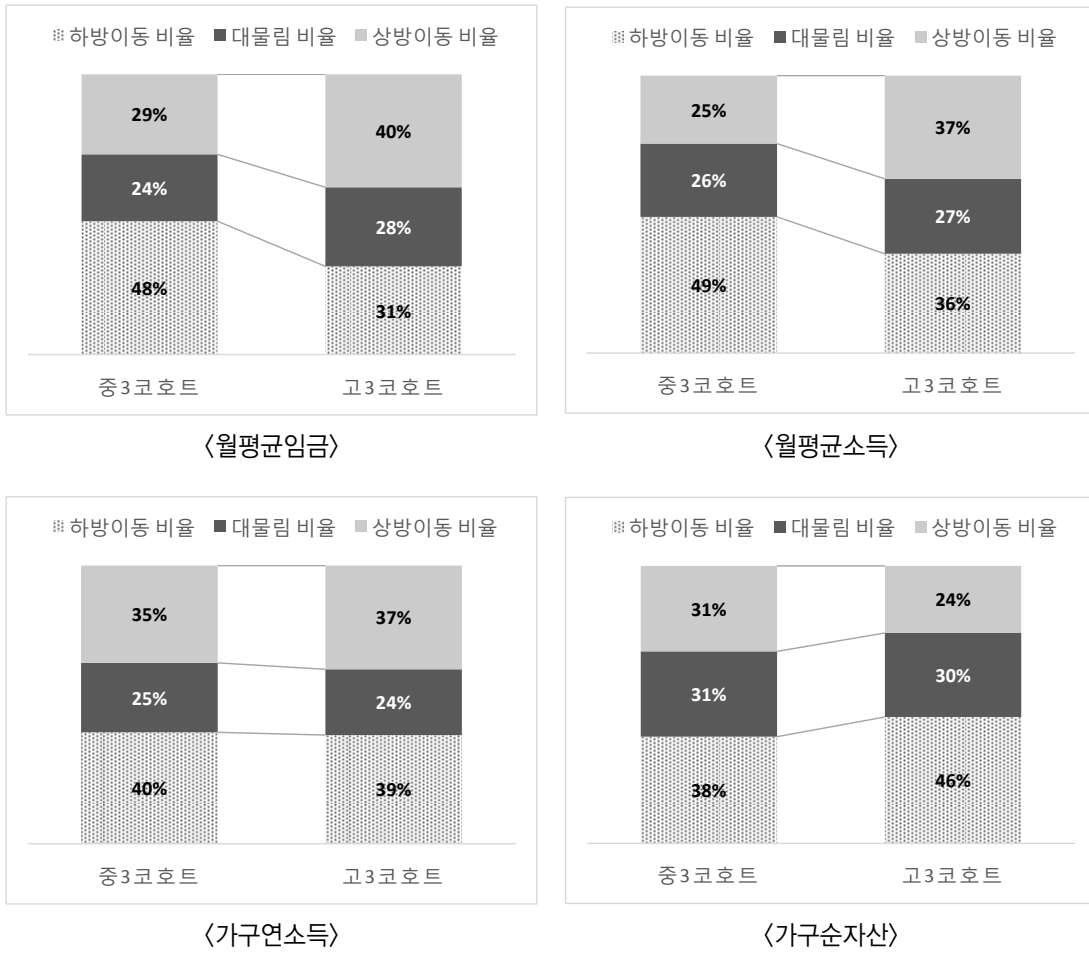
하였고, 사회이동에서 교육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 구조 변화와 교육 기회 확대의 관련성이 강하여, 교육을 통한 육체노동,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로의 이동성이 높았다. 3차(1965~1975년)와 4차(1976~1986년) 조사에서는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성별 격차와 교육 연수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기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 기회를 통해 지위상승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병영·김미란·김기현·류기락(2011)의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집단에서는 현재 소득에 대한 가정형편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대학 진학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간의 계층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교육의 질적 계층화는 사회 이동성 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Ⅲ. 분석개요

#### 1. 분석 자료 및 대상

김희삼(2009) 연구에서는 이행행렬을 활용하여 2006년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자녀세대의 사회이동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김희삼(2009) 연구방법을 차용하여, 2019년 추적조사 당시 30대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으로 이행한 KEEP1의 중3코호트(1987년생)와 고3코호트(1990년생)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를 통해 추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김희삼(2009)에서는 분가한 가구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대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제적 지위로 이행되는 양태를 이행행렬을 통해 관찰하였다. KEEP1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중학교 3학년(1990년생)이었던 집단의 분가가구는 아버지와 아들 67쌍, 아버지와 딸 189쌍이었다.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1987년생)이었던 집단의 분가가구는 아버지와 아들 368쌍, 아버지와 딸 386쌍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 즉, 3년 사이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 간 대물림 비율 및 양태는 다소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대물림 비율은 2006년과 2019년 사이에 1~4%p 정도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아버지와 딸의 대물림 비율은 2006년과 2019년 사이에 7~9%p 정도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다만 KEEP1 중3코호트의 경우, 2019년 추적조사 당시 분가한 가구가 아버지와 아들 67쌍, 아버지와 딸 139쌍에 불과하였다. 특히 중3코호트의 분가한 가구의 아들 중 임금근로자는 21쌍으로 아직 세대 간 비교를 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부(모)에서 아들로의 대물림 비율(KEEP1: 중3코호트, 고3코호트)



[그림 2] 부(모)에서 딸로의 대물림 비율(KEEP1: 중3코호트, 고3코호트)

다음으로 김희삼(2009) 연구 결과와 KEEP1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김희삼(2009)은 KLIPS 2~10차 데이터에서 분가한 가구 아버지와 아들 447쌍, 아버지와 딸 494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1998년 기준 연령으로 50대 중반이었고, 자녀는 2006년 기준으로 30대 초중반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KEEP1 중3코호트와 고3코호트(일반계, 전문계)를 합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12차년도(2015) 이후 시행된 추적조사(2020) 데이터까지 활용하였다. 즉, 추적조사 당시 분가한 가구인 아버지와 아들 435쌍과 아버지와 딸 525쌍이 분석대상이며, 아버지의 연령은 KEEP1 2차년도(2005) 기준 연령으로 40대 중후반이었고, 자녀는 추적조사(2020) 기준으로 30대 초중반이었다.

〈표 1〉 아버지와 자녀의 만나이

구분		2006년			2019년		
		만 나이		기준연도	만 나이		기준연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 아들	아버지	56.4	7.0	1998년	47.3	4.5	2004년
	아들	34.3	4.3	2006년	32.4	1.2	2019년
아버지& 딸	아버지	53.3	6.1	1998년	46.4	4.0	2004년
	딸	31.5	3.6	2006년	32.0	1.4	2019년

주: 설문문항에서 응답 대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연도로 기재함.

## 2. 연구방법

김희삼(2009)에서는 ①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②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 ③ 가구의 연소득과 ④ 부채를 차감한 가구의 순자산을 부모와 자녀의 경제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연령대의 이질성에 따른 경제력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경제력 변수를 연령 및 연령의 제곱에 대해 회귀시킨 후 잔차를 기준으로 4분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KEEP1의 경우 코호트별로 자녀의 연령대가 동일하므로, 자녀의 연령은 회귀시키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력 분위(행)와 자녀의 경제력 분위(열)를 행렬로 나타내어 부모의 경제적 분위가 자녀의 경제력 분위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살펴보았다. 행렬(4\*4)에서 대각원소 4개는 부(모)의 분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 것으로, 그 비율을 구한 후 ‘대물림 비율’이라고 하였다. 대각원소 우상방에 위치한 원소 6개는 부(모)의 분위보다 자녀의 분위가 높은 경우이고, 그 비율을 구한 후 ‘상방이동 비율’이라고 하였다. 대각원소 좌하방에 위치한 원소 6개는 부(모)의 분위보다 아들의 분위가 낮은 경우이고, 그 비율을 구한 후 ‘하방이동 비율’이라고 하였다. 만약 부(모)의 분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면 각 대각원소는 모두 1이 되고, 대물림 비율도 1이 될 것이다. 반대로 부(모)의 분위와 자녀의 분위가 완전하게 독립적이라면, 이행행렬의 원소(16개)는 모두 0.25가 될 것이다.

〈표 2〉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행행렬

부모 \ 자녀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합계
	최하위	대물림	상방이동	상방이동	
하위	하방이동	대물림	상방이동	상방이동	1
상위	하방이동	하방이동	대물림	상방이동	1
최상위	하방이동	하방이동	하방이동	대물림	1



## IV. 분석 결과

### 1. 부(모)에서 아들로의 이행행렬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가구연소득, 가구순자산을 기준으로 부(모)의 분위가 아들의 분위 중 어디로 이행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대각원소 4개는 부(모)의 분위가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간 경우인데, 월평균임금의 경우에는 2006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 상위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각 35%로 최하위(26%), 하위(20%)인 경우보다 높았다. 2019년에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35%)와 상위(26%)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최하위(25%), 하위(2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아버지의 월평균임금 분위가 상위인 경우 9%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아버지와 아들의 월평균임금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26	0.32	0.30	0.11	0.25	0.28	0.23	0.25
하위	0.39	0.20	0.20	0.22	0.19	0.23	0.32	0.26
상위	0.16	0.18	0.35	0.31	0.26	0.24	0.26	0.24
최상위	0.19	0.30	0.17	0.35	0.25	0.25	0.15	0.35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인 경우 33%, 최하위와 상위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각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에는 아버지의 분위가 상위(32%), 최하위(31%)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최상위(25%)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분위가 최상위인 경우 8%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버지와 아들의 월평균소득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32	0.32	0.20	0.17	0.31	0.24	0.31	0.14
하위	0.29	0.21	0.23	0.27	0.32	0.20	0.21	0.27
상위	0.25	0.21	0.32	0.23	0.19	0.19	0.32	0.29
최상위	0.15	0.26	0.26	0.33	0.30	0.25	0.20	0.25

가구연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 부모의 분위가 최상위, 상위, 최하위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각 33%로 하위(25%)인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2019년에는 부모의 분위가 최상위

(26%)와 하위(25%)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최하위(22%), 상위(22%)보다 높았고, 대체적으로 2006년에 비하여 대물림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부모의 가구연소득 분위가 최하위, 상위인 경우 각 11%p, 최상위인 경우 7%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부모와 아들의 가구연소득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33	0.23	0.26	0.18	0.22	0.26	0.30	0.22
하위	0.29	0.25	0.23	0.24	0.23	0.25	0.31	0.21
상위	0.23	0.20	0.33	0.25	0.23	0.29	0.22	0.25
최상위	0.16	0.33	0.18	0.33	0.29	0.24	0.20	0.26

가구순자산의 경우에는 2006년 부모의 분위가 최하위(40%), 최상위(37%), 상위(34%)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하위(25%)인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2019년에는 부모의 분위가 하위(49%)와 최하위(30%)인 경우에 아들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상위(29%), 최상위(15%)보다 높아 2006년에 비해 부모의 가구순자산 분위가 높은 경우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부모의 가구순자산 분위가 최상위인 경우 22%p, 최하위인 경우 10%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반면, 하위인 경우에는 24%p나 대물림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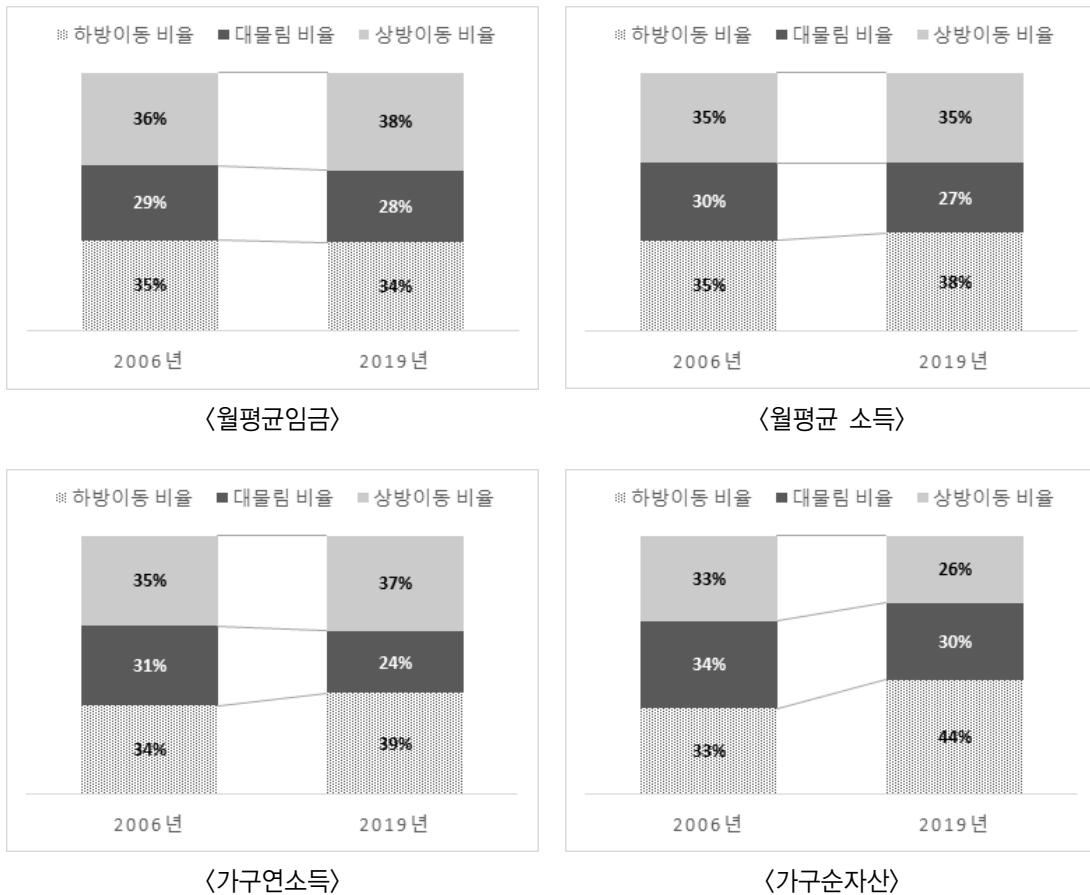
〈표 6〉 부모와 아들의 가구순자산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40	0.30	0.21	0.09	0.30	0.27	0.23	0.20
하위	0.31	0.25	0.18	0.26	0.29	0.49	0.17	0.06
상위	0.17	0.20	0.34	0.30	0.26	0.26	0.29	0.18
최상위	0.13	0.25	0.26	0.37	0.18	0.31	0.36	0.15

2006년과 2019년의 부(모)에서 아들(로)의 이행행렬을 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의 대물림비율과 하방이동 비율은 각각 1%p 감소하였고, 상방이동 비율은 3%p 증가하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는 대물림비율이 3%p 감소한 반면, 하방이동 비율이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연소득의 경우에는 대물림비율이 7%p 감소한 반면, 상방이동 비율은 2%p, 하방이동 비율은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순자산의 경우에는 대물림 비율(4%p)과 상방이동 비율(7%p)은 감소한 반면, 하방이동은 11%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임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물려받는 아들의 비율이 약 30%이지만 가구순자산(34%)에서 대물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한 2019

년에도 임금(27~28%) 및 소득(24%)보다 가구순자산의 대물림비율(30%)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인 아들의 연령이 32~34세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재산을 축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임금이나 소득보다는 재산에서 세대 간 이동성이 낮게 나타난 기존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다만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 가구연소득(30%→24%)이나 가구순자산(34%→30%)의 이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부(모)와 아들(딸)의 사회이동성 비율(%)

## 2. 부(모)에서 딸로의 이행행렬

월평균임금, 월평균소득, 가구연소득, 가구순자산을 기준으로 부(모)의 분위가 딸의 분위 중 어디로 이행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월평균임금의 경우에는 2006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37%), 하위(34%), 상위(31%) 순으로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높았다. 2019년에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42%)인 경우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아버지의 월평균임금 분위가 하위인 경우 10%p, 최하위인 경우 9%p, 상위인 경우 4%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아버지와 딸의 월평균임금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29	0.29	0.24	0.18	0.20	0.32	0.28	0.20
하위	0.23	0.34	0.23	0.19	0.35	0.24	0.19	0.22
상위	0.27	0.18	0.31	0.24	0.27	0.15	0.27	0.31
최상위	0.20	0.22	0.22	0.37	0.17	0.17	0.25	0.42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 아버지의 분위가 최상위(36%), 하위(33%), 상위(32%)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최하위(28%)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아버지의 분위가 상위(33%), 최상위(31%)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최하위(23%), 하위(2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분위가 하위인 경우 11%p, 최하위인 경우 5%p 대물림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아버지와 딸의 월평균소득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28	0.26	0.22	0.24	0.23	0.30	0.23	0.24
하위	0.28	0.33	0.25	0.14	0.32	0.21	0.22	0.25
상위	0.24	0.18	0.32	0.26	0.25	0.18	0.33	0.25
최상위	0.21	0.22	0.21	0.36	0.24	0.19	0.26	0.31

가구연소득의 경우에는 2006년 부모의 분위가 최하위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39%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19년에는 부모의 분위가 최상위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부모의 가구연소득 분위가 최하위인 경우 대물림 비율이 12%p 낮아진 반면, 최상위인 경우에는 대물림 비율이 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부모와 딸의 가구연소득(열) 간의 이행행렬(2019년)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39	0.21	0.24	0.16	0.27	0.29	0.23	0.21
하위	0.25	0.26	0.25	0.25	0.24	0.27	0.25	0.25
상위	0.18	0.24	0.24	0.34	0.20	0.23	0.27	0.29
최상위	0.18	0.29	0.27	0.26	0.23	0.22	0.24	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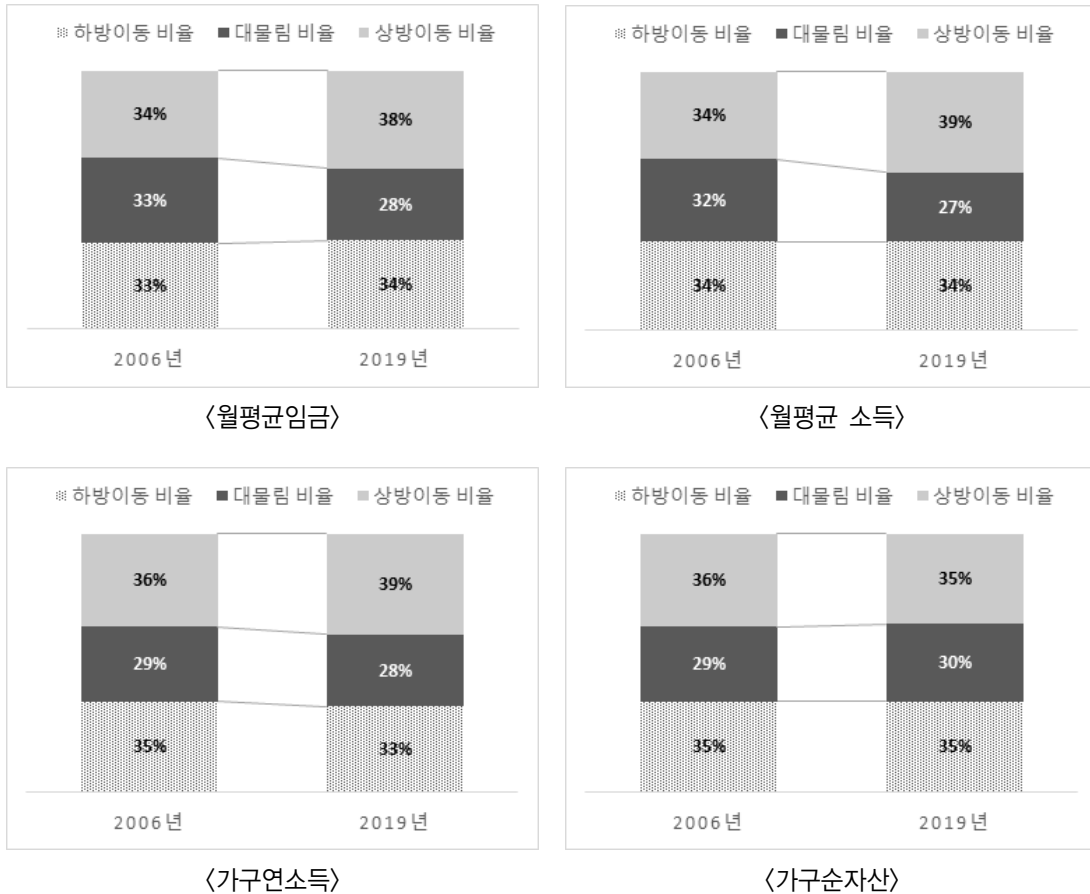
가구순자산의 경우에는 2006년 부모의 분위가 최하위(36%), 최상위(31%)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상위(27%), 하위(24%)인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2019년에는 부모의 분위가 하위, 최상위인 경우에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각 32%로 상위(23%)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는 아버지의 월평균소득 분위가 최하위(5%p), 상위(4%p)인 경우 분위가 딸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낮아진 반면, 하위인 경우에는 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와 딸의 가구순자산 이행행렬

자녀 부모	2006년				2019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하위	상위	최상위
최하위	0.36	0.29	0.19	0.16	0.31	0.27	0.16	0.27
하위	0.31	0.24	0.26	0.20	0.29	0.32	0.17	0.22
상위	0.15	0.25	0.27	0.33	0.38	0.15	0.23	0.23
최상위	0.18	0.23	0.28	0.31	0.16	0.24	0.27	0.32

2006년과 2019년의 부(모)에서 딸로의 이행행렬을 살펴보면, 월평균임금 대물림비율은 5%p 감소한 반면, 상방이동 비율(4%p)과 하방이동 비율(1%p)은 증가하였다. 월평균소득의 경우에는 대물림비율이 5%p 감소한 반면, 상방이동 비율은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연소득의 경우에는 대물림비율(1%p)과 하방이동 비율(2P%p)이 감소한 반면, 상방이동 비율은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순자산의 경우에는 대물림 비율이 1%p 증가한 반면, 상방이동 비율은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삼(2009) 연구에서는 임금 및 소득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물려받는 딸의 비율보다 가구순자산에서의 대물림 비율이 갖거나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들과 동일하게 임금 및 소득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물려받는 딸의 비율(27~28%)보다 가구순자산(30%)에서 대물림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 월평균임금(33%→28%)과 월평균소득(32%→27%)의 이동성이 다소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부모와 딸로의 사회이동성 비율(%)

## V. 결론

사회이동성은 한 사회의 역동성, 사회통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이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Corak, 2013)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예: AI, 챗GPT 등) 도입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어 한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희삼(2009)과 Oretta(2010)의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북유럽과 함께 높은 사회이동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과거 한국에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고,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높은 교육열 만큼 교육 기회도 많아 교육을 통한 상위 직종 일자리로의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고도성장이 멈추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예전처럼 상위 직종의 고용창출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점에서 사회이동성은 과거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사교육 시장이 심화되어 교육에 있어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정도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

케티(2004)에 따르면, 18세기부터 지금까지 자본수익률( $r$ )이 경제성장률( $g$ )보다 높기 때문에 ( $r > g$ ),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는 절대 상속받은 자산의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다. 즉,  $r > g$ 에서는 자본소득(예: 임대료, 배당금, 이자 등)과 과거에 축적한 부(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자녀 세대의)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 이동성이 과거와 같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희삼(2009)의 방법을 차용하여 부(모) 세대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분위(최상위-상위-하위-최하위)와 자녀 세대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분위의 이행행렬을 작성하였다. 즉,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얼마만큼 지위가 대물림 되는지 그리고 상방이동과 하방이동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은 김희삼(2009) 연구의 2006년(30대에 도달)의 자녀세대와 본 연구의 2019년(30대에 도달)의 자녀세대이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다르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선행연구를 따른 김희삼(2009)의 연구와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이행행렬을 분석한 결과,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임금과 소득, 가구순자산에서 대물림 비율이 1~4%p 정도 감소하였고, 가구연소득에서 대물림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7%p)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딸의 이행행렬 분석에서는 2006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임금과 소득은 대물림 비율이 각 5%p 감소한 반면, 가구연소득과 가구순자산의 대물림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13년간 한국의 사회이동성은 생각만큼 눈에 띄게 저하되지도,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행행렬에서 나타난 사회이동성이 현실을 정확하게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세대 간 대물림과 상·하방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행행렬이 어느 정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김희삼, 2009). 다만 경제적 지위가 충분히 결정·측정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연령이 많지 않으면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는데(Solon, 1999), 김희삼(2009)과 본고의 분석한 자녀세대는 31~34세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노동시장 진입 전 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이 있다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자녀세대의 연령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추후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회미래연구원(2023).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방안.
- 김희삼(2009).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KDI.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2008).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1943~195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2009).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 1956~1965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II):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락(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IV): 1976~1986년 출생집단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신문(2023.08.22.). 청년 70% “내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의 조건”[2023년 청년 부채리포트(상)].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3004002>)
- 안종범, 전승훈(2008). 교육 및 소득수준의 세대간 이전. 재정학연구, 1(1).
- 여유진, 김수정, 구인희, 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 여유진, 김문길, 장수명, 한치록(2011).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2010).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 토마 피케티(2014). 『21세기 자본』.
- 통계청(2023a). 2022년 출생 통계.
- 통계청(2023b). 2023년 6월 인구동향.
- 통계청(2023c).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 의식변화.
- Blanden, Jo, (2005). “International Evidence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Working Paper,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Corak, Miles. (2013).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The Economics of Inequality, Poverty, and Discrimination in the 21<sup>st</sup> Century..
- Orsetta Causa and Asa Johansson.(2010)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 Solon, Gray R.(1999),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Labor Market,”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A).



## ❖ Abstract ❖

##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Lee Jieun, Hwang Sungsu(KRIVET), Kim Moongil(KIHASA)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using the data from the 2nd year(2005) of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tudy Wave I (KEEP1) for the cohorts of 3rd graders in middle school and 3rd graders in high school, as well as the follow-up data from 2019. The study adopted the transition matrix analysis method proposed by Kim Hee-sam(2009) to compare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First, the study compared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between fathers and sons(67 pairs for middle school 3rd graders in 2004 and 368 pairs for high school 3rd graders in 2004) and fathers and daughters(189 pairs for middle school 3rd graders in 2004 and 386 pairs for high school 3rd graders in 2004) during the time when KEEP1 survey began in 2004. 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rates and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between th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cohorts, it was determined that it is too early to make intergenerational comparisons for the middle school cohort since they had not yet established separate households as of the 2019 follow-up survey.

Next, the study examined how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had changed over the course of 13 year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Kim Hee-sam's research(2009), which focused on the transition of the child generation to the labor market when they reached their 30s in 2006, wi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which focused on the child generation's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when they reached their 30s in 2019. It was observed that the rate of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for fathers and sons(435 pairs in 2019) had decreased by about 1-3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fathers and sons in 2006(447 pairs). Additionally, for fathers and daughters, the rate of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in terms of wages and income(525 pairs in 2019) had decreased by about 5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fathers and daughters in 2006(494 pairs).

The results of the transition matrix analysis comparing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between 2006 and 2019 indicated that there was a noticeable decline or no improvement in social mobility. However, since both cohorts of child generation in 2006 and 2019 were still in their early 30s and had just established separate households, continuous observation and further analysis are needed.

**Key words:** keep,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